

<SBS 세상에 이런일이>---오존의 무서움은 고무장갑을 하룻만에 너덜너덜 찢어놓는다 ---< 고무장갑테러사건>-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용한 사람들의 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법변혁 대한민국]

2013. 6. 28. 19:15

<https://blog.naver.com/1003hongsam/70170571252>

매일 고무장갑이 찢어지고 녹아난다??? 칼로도 찢기 어려운 고무장갑이 하루 밤 사이에 발기발기 찢어진다는 사실...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비린내(오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두 개의 정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이런일이 <2013.6.27>

널찍한 식당의 주방에는 요즘 며칠째 계속 고무장갑을 널어놓고 가면 찢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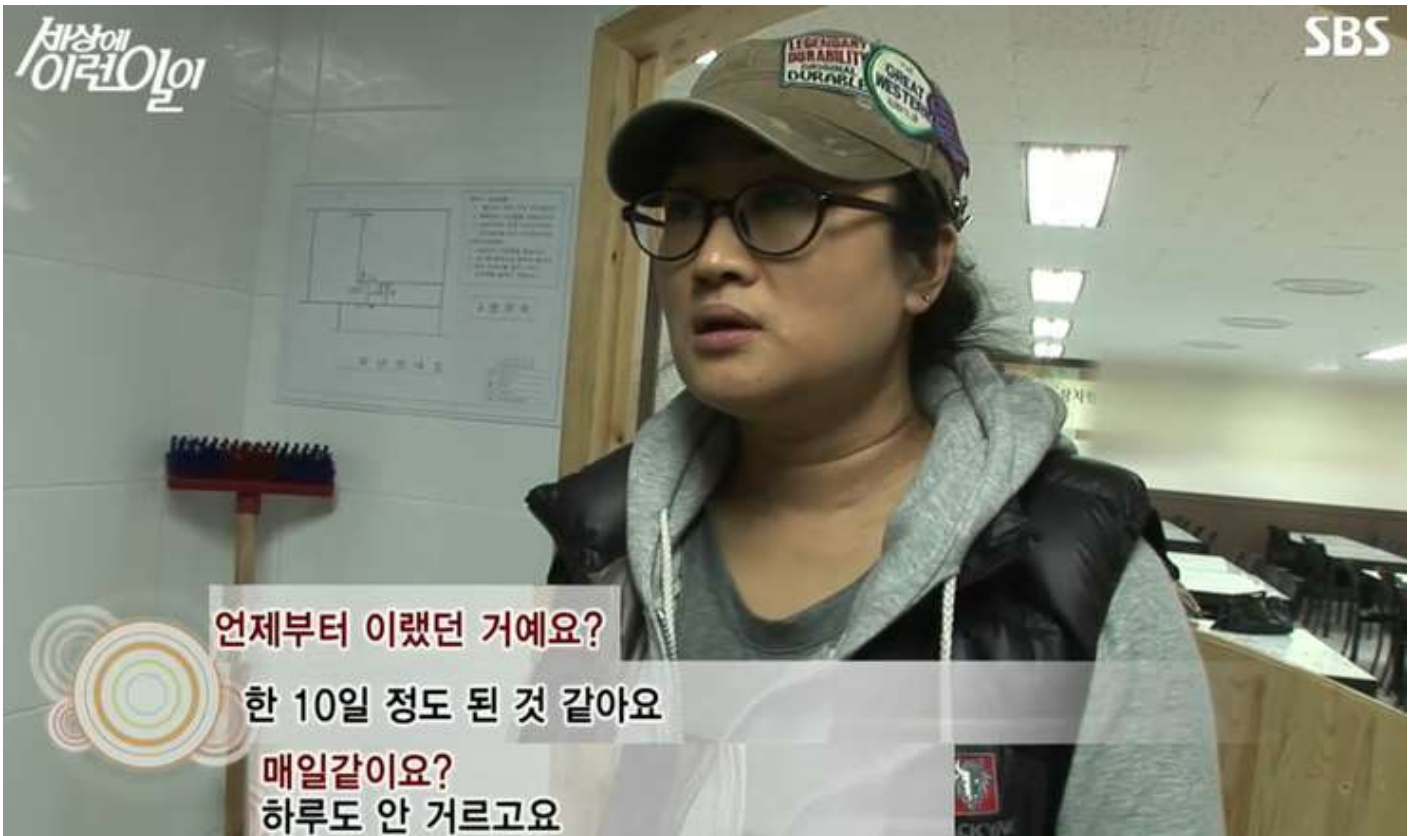


하루밖에 안 쓴 장갑인데도 저녁에 일을 마치고 넣어놓고 아침에 오면 너덜 너덜



갈갈이 찢어져 있는 하루 사용한 고무장갑  
(이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범행의 위력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정부가 돌이 지나갔습니다. (한 정부 5년, 두 정부 10년 은 폐)



뭔가 주방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낡은 장갑을 하루 놓아둔 것이 아닙니다. 새장갑을 하루 사용한 것입니다.  
건장한 청년이 힘껏 잡아당겨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덜 너덜,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새 장갑을 뜯어서 하루를 사용하고 주방에 넣어 놓았는데, 자고 나면 너덜너덜...



주방에 귀신이 있는것 같아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도 못들어가고 동료들이 모두 올때까지 기다림 (얼마나 무서우면...)



역시나 주방을 열고 들어가 보면, 너덜 너덜 (아이고 무서버라...)



주방내 다른곳에 널어둔 고무장갑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찢으려해도 못 한다는 사장님 말씀.... 걱정 걱정..



그럼요 범인은 잡아야죠.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잡아서 쫓아야죠.  
<야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이름으로 명하니 썩 지옥의 무저갱으로 떠날지어다!>



한 분이 그만뒀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직원 한 분은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역시, 귀신을 두려워하면 이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쫓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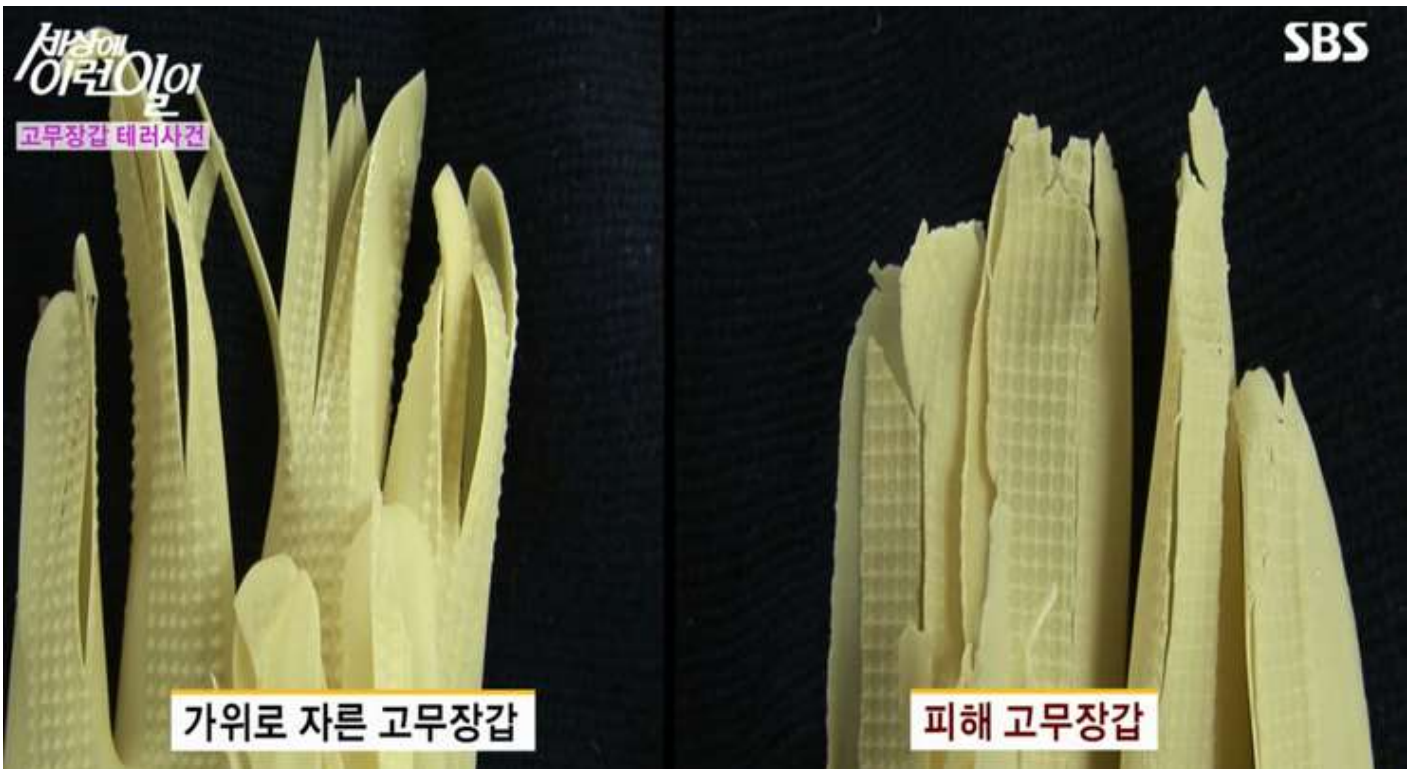


3일치 고무장갑,, 모두 너덜너덜입니다. 정말 귀신 짓처럼 보이는군요.





10일 정도 전부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식당 개업하고 처음부터가 아니라는 것.



가위로 잘라보아도, 피해 고무장갑과는 전혀 형태가 틀립니다.



칼로 잘라보아도 잘 안잘려지는 고무장갑이 하루 밤만 지나면,,, 너덜너덜



낮에는 별 이상이 없다가.... 밤에만 (? : 밤손님)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십년동안 수많은 국민을 속이고, 완전범죄를 노려도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만고의 진리죠)  
 범인을 잡고 보니 , 저런 , 저런 사람이 아니고...



범인을 잡은 이분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굿하고 부적까지 붙였다는데요.



더... 더 난리...  
장갑이 그날 따라 녹아서 떨어졌더라고요. 가닥가닥  
긁하던 날 밤에는 한술 더 떠서 장갑이 녹아 내렸다고 하는군요.



고무장갑과 가까운 거리에 다시 관찰카메라 설치  
카메라로 녹화하여 관찰하니



밤사이에 저절로 찢어지는 모습을 본 사장님 , 더욱 ....



백배 속으로 지난밤 관찰카메라를 돌려보니  
 (하룻밤 사이에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순식간에 보여줌)

범인은 오존? 아니 비린내 나는 오존이 범인이라고?  
 (얼마나 수 많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죽어갔을까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수백만  
 대가 팔렸는데... 그러니 이런 치명적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피해사실을 알린  
[www.air365.net](http://www.air365.net) 을 탄압하고, 지금도 그 가업인 홍삼찬가의 블로그에 공감하기 기능  
 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 아닐까요.



역시 환경공학과 교수님이라 다르군요..사람이면 어찌되었을런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텐데요.

결론에 가서는 밤에 환기만 시켜주면, 고무장갑이 멀쩡하니, 환풍기만 틀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였으면, 어땠을까요. 밖의 바람이 들어올까봐 방문을 꼭꼭 닫고, 심지어 아기방에, 폐가 안좋은 어르신들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음이온으로 생각하고 그 비린내가 빠져 나갈까봐 문들을 꼭꼭 닫고 사용했는데....

그 아기들, 어르신들, 일반인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위의 방송내용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분들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를 실내에서 사용하면서 환기까지 시키는 소비자들이 있었을까요??? 청정한 공기가 새나갈까봐 오히려 문풍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릿한 냄새가 나는것 특히 전기장치에서 나는 비린내는 모두 오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이온이라고 십수년을 속여왔지요. 특히, 오존은 무색,무미라서 오직 냄새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냄새가 비릿할 정도면 이미 인체에 해가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비린냄새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주 적은 양으로 본다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는 비린냄새가 폴폴 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양의 오존이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지요.

방송에는 오존이 고무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보여주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요.(인체에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사실)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한여름의 오존주의보에 잘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오존의 치명적인 피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비자보호원과 결탁했던 일련의 부패한 판검사들은 지금도 완전범죄를 노리며,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의 패악을 숨기고 있습니다.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패악을 알리며 온 국민을 오존에서 구해낸 [www.air365.net](http://www.air365.net) 맑고 싱그러운 세상은 사법변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삼찬가 **블로그의 공감하기 기능은 막혀있습니다.(그래서 이웃의 블로그에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이웃이 한 분 생길 때 마다 까무라칩니다.

지난 10년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도 저에게 이웃이 한 분 한 분 생기자 이들은 지금 개거품을 물고 죽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이웃이 늘어나면, 삼복에 된장 발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 SBS 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오존의 치명적인 피해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에 이런일이>의 제작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변혁으로 아름다운 내 나라, 내 조국을 만들어가신 모든 분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http://www.air365.net) exe 곽 춘 규

또한 , 가업인 홍삼찬가의 가주로서, 홍삼쟁이 곽 춘 규 배상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748회 다시보기 2013/06/27

[http://search.sbs.co.kr/result/vod\\_detail.jsp?vVodId=V0000010099&contents\\_use=T1&vVodCnt1=00748&vVodCnt2=00](http://search.sbs.co.kr/result/vod_detail.jsp?vVodId=V0000010099&contents_use=T1&vVodCnt1=00748&vVodCnt2=00)